

[카드 뉴스] 마이데이터 산업과 워킹그룹의 과제



마이데이터산업 개요

- 금융자산 정보, 신용정보 등 고객 데이터 주체 '개인'으로 변경
-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동의 하 데이터 수집/분석 후 맞춤형 서비스 개발 가능
- 금융 고객은 금융상품 선택지가 다양해져 안정적인 재테크 가능



<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'데이터 전략 발표로 4차 산업혁명 D·N·A 완성'>

마이데이터산업 수혜 업종

- 고객 금융자산 정보는 고객 재무 상태 진단, 신용평가/대출, 기업 컨설팅 등에 활용
- 도입 시 핀테크, CB, ICT 업계 전반의 서비스 수준 상승과 산업 업그레이드 가능

| 구분 | 핀테크 업계 | CB업계 | ICT업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력 사업모델 | 고객 재무상태 진단 후 상품 추천 |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후 대출 등에 활용 | 보유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컨설팅 |
| | 건강 관리, 절세 등 관련 자문 | 공과금 납부 내역, SNS 등 활용한 신용평가 | 데이터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리스크 감지 |
| 선결 과제 | 고객 동의 후 금융권 정보 활용 가능 | 최소 자본금 요건 완화 등 |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 가능 |
| 국내 주요 기업 | 뱅크샐러드, 토스, 핀크 등 | 나이스 평가정보와 같은 기존 CB사, 카드사 등 | 카카오페이, SKT 등 |
| 해외 선도 기업 | 크레딧 카르마, 요들리 등 | 파이코(FICO), 렌도(Lenddo) | 데이터 마이너 등 |

<출처: 헤럴드경제>

해외 주요국 마이데이터산업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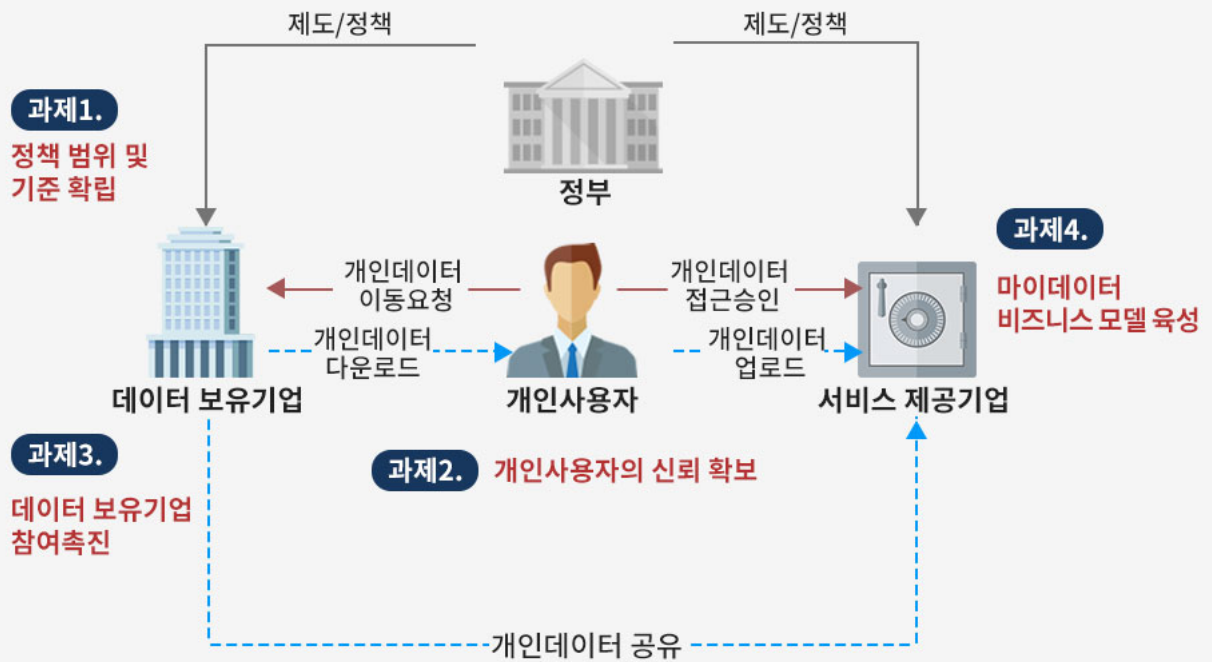
- 해외 각국에서 마이데이터산업 정책 실행, 시장 형성 중
- 나라별로 추진 체계는 다르지만 추진 목적, 활용 분야 유사

| 구분 | 미국 | 영국 | 프랑스 |
|-------|---|---|---|
| 명칭 | 스마트 디스클로저 (Smart Disclosure) | 마이데이터 (Midata) | 메쟁포 (MesInfos) |
| 추진 목적 | 고객 정보 기반 의사결정 지원 | 고객 주권 강화, 의사결정 능력 제고 | 기업이 독식해온 개인데이터 활용 편익 공유 |
| 편익 | 고객 효용성 향상 | 경제 활성화 | 개인 데이터 활용 편익 개인, 조직, 사회 공유 |
| 추진 체계 | 정부 전담 기관 (OMB, NIST) 분야별 추진은 전담 부처에서 진행 (재향군인청, ONC, 에너지부 등) | 정부 전담 기관 (BEIS) 민간연합체 (운영위원회, 활동위원회) | 민간연합체 (FING&Cap Digital) |
| 민간 참여 | 블루 버튼 얼라이언스 (Blue button Alliance, 에너지 분야), 그린 버튼 얼라이언스 (Green Button Alliance, 의료 분야) | 운영위원회, 활동위원회 (규제기관, 소비자 단체, 분야별 기업 등 26개 기관) | 파일럿테스트 참여 기업 (데이터 제공기업-보험, 은행, 유통, 텔레콤, 서비스지원) |
| 활용 분야 | 건강, 에너지, 교육 등 | 에너지, 금융, 통신 등 | 의료, 에너지, 개인 일상 등 |

<출처: 투이컨설팅 'OAuth 2.0과 마이데이터'>

국내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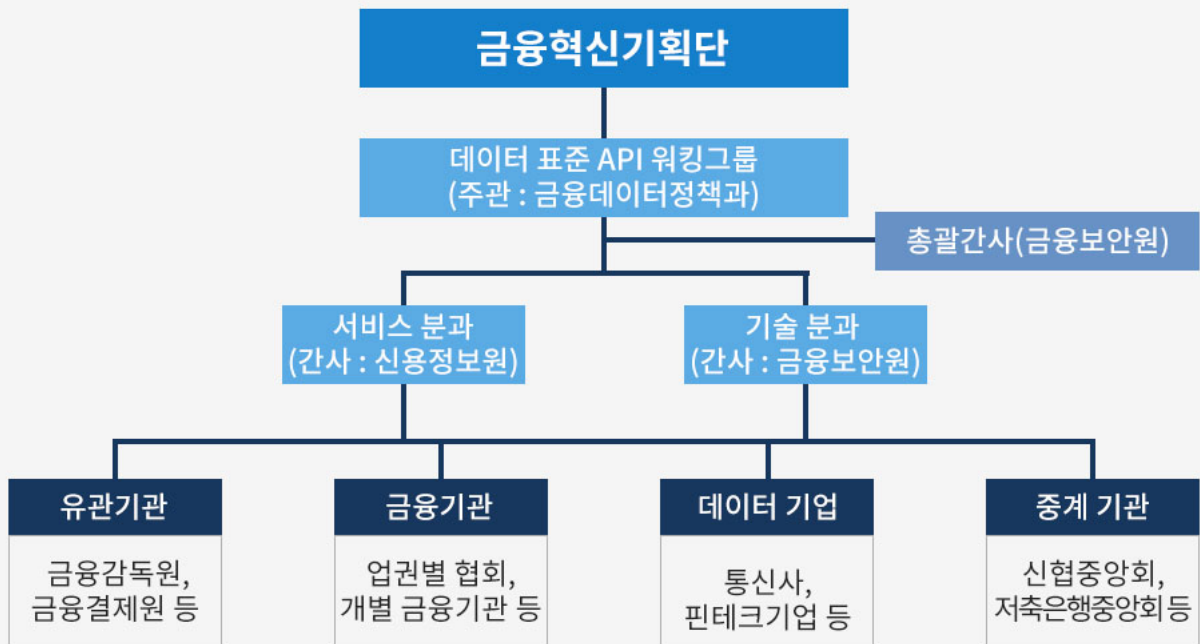
- 정부,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산업 정책 추진
- 제도/정책 세부 사항 확정, 개인 사용자 신뢰 확보, 데이터 보유기업 참여 필요
-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목표



<출처: 투이컨설팅 '마이데이터, 사회적 협의부터'>

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구성안

- 금융 당국, 8월까지 제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(WorkingGroup) 운영
- 현재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운영
- 유관기관, 금융기관, 데이터 기업, 중계기관의 소통 창구로 자리하며 데이터 표준 API 도입 추진



<출처: 금융위원회 '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 구성(안)'>

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금융산업 지형도,
그리고 2차 워킹그룹의 과제

- 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- 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